

지난해 전북교육정책 만족도 3.83

전년보다 0.24 ↑ ... 학생 문예체육교육· 학부모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직원 수업혁신 만족도 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전북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전년보다 0.24 상승한 3.8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3년 10대 핵심과제와 고교학점제·환경교육·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전반·자유기술까지 14개 지표로 진행, 공립단설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8,890명이 참여했다.

대상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은 문·예·체교육 강화(4.00)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전반(3.99), 수업혁신(3.99), 미래교육 환경 구축(3.95) 순이었다.

또 학부모는 미래교육 환경 구축(4.10)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4.07), 기초학력 책임제(4.06), 안전한 학교(4.01)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학부모는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자녀의 학습 상황 점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4.22) 하는 등 에듀테크와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어 교직원은 수업혁신(3.84)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미래교육 환경구축(3.82), 기초학력 책임제(3.80), 고교학점제(3.71)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직원의 경우 행정혁신에 대

한 만족도가 2.93으로 가장 낮아 '학교업무 지원과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관심과 요구가 높은 영역에 있어서는 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만족도는 낮으나 필요성이 큰 영역에 있어서는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은 최근 비전관 대회의실에서 군장대학교·전북과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과 대학 간 공유·협력 강화를 위한 전북권역 혁신지원사업 공동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혁신지원 사업성과 공유 전북권역 3개 대학, 협력 강화

전주비전대-군장대-전북과학대, 성과 포럼 개최 지자체-대학 간 거버넌스 구축 통한 특성화 방향 등

전북권역 3개 대학이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대학 간 협력을 강화했다.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은 최근 비전관 대회의실에서 군장대학교·전북과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과 대학 간 공유·협력 강화를 위한 전북권역 혁신지원사업 공동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 포럼을 통해 각 사업단은 △지역 내 교육기관으로서 각 대학의 역할 공유 △초·중·고·대학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교육혁신 방안 공유 △새로운 성과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주비전대 박용근 혁신지원사업단장, 군장대 전근환 혁신지원사업단장, 전북과학

대 박선아 혁신지원사업단장 등 전북권역 사업단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전주비전대학교는 '나노디그리 등 소단위 전공 운영 및 데이터기반 교육성과 분석 등 교육혁신 성과'를, 군장대학교는 '지자체-대학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학 특성화 방향'을, 전북과학대학교는 '문화콘텐츠 연구소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박용근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자리였다"며 "각 대학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RIS 에너지산업 생태계 육성 창업아이디어 경진

국립군산대학교 RIS에너지산업 사업단에서 주관한 RIS에너지산업 스타트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최근, 군산 에이본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진대회에는 40여명의 열정적인 교육생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고, 교육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2명의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 강사와 5명의 경험 많은 멘토가 함께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원광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AOD'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팀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충전 스테이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큰 이목을 끌었다.

최우수상은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구성한 'E.Q.' 팀이 차지했으며, 이 팀은 버려지는 과일 껍질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펠릿을 연료제조 및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EtoM' 팀과 '와이저스' 팀이 수상했으며, 각각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잉여 전력 활용과 스마트팜 환경 제어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날 수상한 팀에게는 후속 지원으로 1:1 전문 멘토링과 최대 500만 원의 시제품 제작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팀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실제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관근 기자



'협약형 특성화고 도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전북하이테크고등학교와 한국치초과학교고등학교, 이리공업고등학교 등 협약형 특성화고에 도전하는 학교들과 차례로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치초과학교고등학교에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확대

전북자치도교육청, 올해 1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22명 인력 보강... 이달 중 현장 의견 수렴 신규 업무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명으로 구성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는 올해 1월 14개 시·군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

고, 22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현재 센터는 △교직원 법정외업무 지원 △초중등간교과교사 지원 △지방과후학교 및 돌봄강사 지원 △기간제교사 인력 채용업무 지원 △교원 호봉업무 지원 △법률활용카메라 대여 및 긴급 점검 지원 등의 학교업

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2월 중에 수업중심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업무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규 업무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타시도 업무분석을 통해 발굴한 업무를 포함해 16개 이상의 업무를 7월 인사에 확대 적용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확대·개편으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경감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업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 공립 중등교사 등 신규임용 최종합격자 373명

15일까지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서 조회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및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373명을 결정, 홈페이지(www.jte.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402명(일반 367명, 장애 35명) 선발에 제1차 시험에서 577명(일반 570명, 장애 7명)이 합격했으며, 최종합격자는 373명(일반 367명, 장애 6명)이다.

개인별 합격여부와 성적은 오는 15

일까지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특히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2차로 나눠 시행, 제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시험을 실시하고, 제2차 시험은 수업실연능력과 교직적성 심층면접, 체육, 음악, 미술은 실기평가가 이뤄졌다. 배점은 제1차·제2차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중등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3급 이상인 자 중



국립군산대 음악과 주평팅 플룻 아트 국제콩쿨 3위 입상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일반대학원 음악 전공에 재학 중인 주평팅 학생(지도교수 이현주 음악과 교수)이 최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인터네셔널 플룻 아트 페스티벌 국제콩쿨에서 3위에 입상했다.

인터네셔널 플룻 아트 페스티벌은 한국 연세대, 일본 도쿄예술대학, 싱가포르 및 중국 전역의 국립 음악대학 교수진의 교육 및 연주 등 폭넓은 교류를 위한 아시아 대표적 학술대회이다.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는 클래식을 비롯한 폭넓은 실용음악까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 후 교수들과의 1:1 면담을 통해 진로 및 전공 상담을 받고, 상담 결과에 따라 교수들의 꼼꼼한 지도를 받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 학생해외연수 운영 방안 안내

글로벌 프론티어 외 9개 연수서 1300명 등 총 2900명 선발 해외연수 추진 기관·부서, 이달까지 계획 수립 3월부터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 학생해외연수 운영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글로벌 프론티어 외 9개 연수에서 1,300명을,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해외 역사문화 탐방 외 22개 연수에서 1,600명 등 총 2,900명을 선발·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기관·부서는 1~2월에 해외연수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학생을 선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1월 주재·인원·국가·시기·문의처 등 학생 해외연수 자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연수·국제교류 사이트(https://www.jte.go.kr/global)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보 부족에 따른 해외연

수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중·고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해외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속 학교(사립 기관·부서, 교육청 국제교류팀(239-3189)에 문의하면 학생 선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운영팀 정책기획과장은 "올해는 학생 스스로 기획해서 주도적으로 연수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면서 "학생 해외연수가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여는 큰 걸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기차·충전기 전문인력 공급 박차

전주비전대, EV과 산학협력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7일 EV(이비움)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로 변화되면서 자동차 정비산업도 빠른 전환이 요구돼 이를 대비한 전문 인력양성과 직업 기술교육 분야에 협력해가기로 했다.



우병훈 총장은 "국가는 물론 우리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급에 맞게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해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전기차 모빌리티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인력공급 모델을 완성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V에 이후경 대표는 "현재 전기자동차는 물론 자율주행차, 배터리, 충전장치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솔루션과 기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비전대학교를 거점으로 교육과정 개발, 실증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을 아우르는 시그니처 산학모델을 만들

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교수(자동차과)는 "앞으로는 자동차를 비롯한 농기계, 오토바이 등 이차전지를 동력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보급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자동차과는 자동차정비 국가자격시험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자격증과 전기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미래모빌리티학과로 개편된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2023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평가 '우수'

교육·산학협력 운영 전략,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서 성과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SW벤처인재양성사업단이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2023년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국내 총 19개 대학이 참여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원광대는 교육 및 산학협력 운영 전략,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SW벤처인재양성사업단장 복경수 교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SW 개발자를 양성하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여역원의 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W벤처인재양성사업단은 성과에 따라 1~2위에 부여되는 추가 인센티브 중 3천만원을 지원받고, 향후 총 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